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연준과 달리 '인플레이션 일시적' 스탠스 못 바꾸는 유럽의 속사정
 - ◇ (POLL)-달러 강세 지속 전망..금리 격차 영향 - 애널리스트들
 - ◇ (초점)-물가 쇼크에 1 월 금리인상 확정 vs 물가설명회·신년사까지 봐야
 - ◇ (초점)-달러/원, 왜 1170 원대로 급락했을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한 승객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수마야 히삼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3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80.1	1.1%	-7.9%	+6.5%	유로	1.1313	0.0%	-7.4%	+8.9%
100엔 대비	1,045.8	0.8%	0.5%	+1.1%	엔	112.80	0.5%	-8.5%	+5.2%
유로 대비	1,334.9	1.3%	-0.7%	-2.3%	위안	6.3777	0.1%	2.4%	+6.7%
위안 대비	185.04	1.0%	-10.1%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580.08	-0.9%	13.0%	+7.2%
코스피	2,968.33	1.1%	3.3%	+30.8%	나스닥	15,085.47	-2.6%	17.0%	+43.6%
코스닥	998.47	-0.7%	3.1%	+44.6%	S&P500	4,538.43	-1.2%	20.8%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23.00	-0.8%	-5.9%	+19.8%
국고채 3Y	1.900%	3.7bp	92.4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027%	-2.3bp	69.2bp	-14.5bp	미국채 2Y	0.593%	8.5bp	47.2bp	-144.0bp
국고채 10Y	2.234%	-2.1bp	52.1bp	+3.0bp	미국채 10Y	1.356%	-12.5bp	44.4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6.26	-2.8%	36.6%	-20.5%	한국 5Y	21.1bp	1.0bp	-0.9bp	+0.1bp
금(현물)	1,783.74	-0.5%	-6.0%	+25.0%	일본 5Y	17.9bp	0.3bp	2.9bp	-4.5bp
TR상품지수	3,297.94	-2.7%	23.1%	+7.8%	중국 5Y	52.4bp	-0.3bp	24.4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2월 6일(월)>

- 기재부,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12:00)
- 금감원,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7일(화)>

- 한은, 10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금감원장, 여전사 CEO 간담회 개최(10:30)
- KDI 경제동향(2021. 12)(12:00)

<8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기재부, 부총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10:00)
- 금융위, 11월 가계대출 동향(12:00)
- 한은, 11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2021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12:00)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 기재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16:00)

<9일(목)>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10:00)
- 금감원장, 상호금융 CEO 간담회 개최(11: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2:00)
- 한은,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12:00)

<10일(금)>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2월 6일(월)>

- 유로존 12월 섹스지수 (18:30)
- 미국 11월 고용추이 (자정)

<7일(화)>

- 일본 10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11월 외환보유고 (08:50)
- RBA, 통화정책회의 (12:30)
- 중국 11월 수출입 지표
- 중국 11월 외환보유고 (17:00)
- 유로존 3분기 GDP 수정치 (19:00)
- 미국 3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2:30)

<8일(수)>

- 미국 10월 소비자신용 (05:00)
- 일본 12월 로이터단칸 제조업·서비스업지수 (08:00)
- 일본 11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10월 경상수지 (08:50)
- 일본 3분기 GDP 수정치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캐나다은행, 금리 결정 발표 (자정)

<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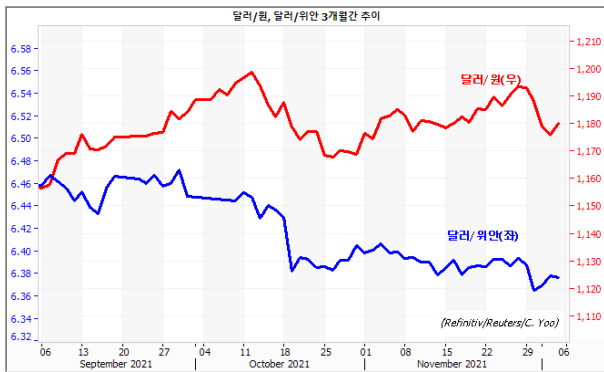
- 일본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08:50)
- 중국 11월 CPI·PPI (1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0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 (자정)

<10일(금)>

- 연방준비제도, 3분기 자금흐름 계정 발표 (02:00)
- 일본 11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11월 CPI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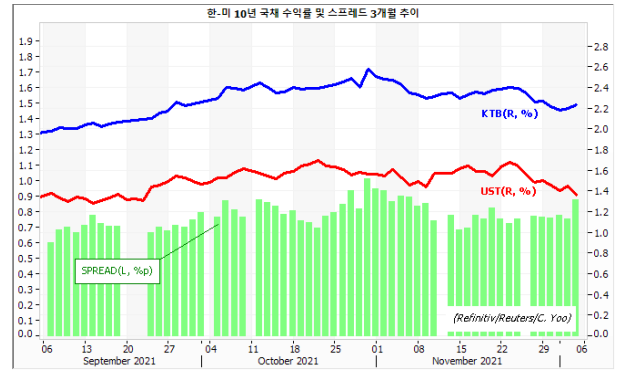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예상과 다르게 급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코로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관련 동향과 수급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195 원이다.
- 오미크론 불안 여건에서도 환율이 하방 압력을 키운 데다 외국인 주식 매수세와 관련한 수요 위위 지속성을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 달러/원 1170 원대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 지난 주말 뉴욕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 다만, 달러지수는 보험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안전 통화로 여겨지는 엔화 강세 여파에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달러 행보가 조금은 애매하지만, 지난주와 같은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달러/원에 대한 저점 매수 심리는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물론, 오미크론 전개 양상과 관련 헤드라인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원화 행보 역시 예단할 수 없는 시점이다.
- 연말이라 시장 호가는 한층 얕아져 있는 데다 수급 불확실성도 높아 환율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듯하다.
- 이번 주 주목되는 지표로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있지만, 발표일이 10일로 주 중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는 중국 11월 수출입과 물가지표다.
- 국내는 7일 10월 국제수지(잠정)가 발표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코로나 19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 관련 뉴스 플로우와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한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지난주 중반 이후 오미크론 변수의 영향력은 반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 특히 오미크론 증상이 경미하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번 주 최대 변동성 요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학연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증상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번 주 대내외 금리 반등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지표 부진으로 지난 주말 급락했던 미국 국채금리도 일정 부분 반등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채권시장도 갈지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강경한 스탠스도 변수다.
- 지난주 확인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스탠스를 감안할 때 오미크론이 경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경우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오는 14일~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며 글로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오는 10일로 예정된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발표가 중요하다. 시장에선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해 전월(6.2%)보다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서프라이즈라도 터지면 채권금리 반등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점)-연준과 달리 '인플레이션 일시적' 스탠스 못 바꾸는 유럽의 속사정

프랑크푸르트/런던, 12월 02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래 유지했던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아직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 물가 상승세를 설명할 때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해 통화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이에 똑같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ECB 나 영란은행도 이 표현에 변화를 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조만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유로존과 영국의 인플레이션도 이례적으로 높고, 불과 몇 주 전 정책 결정권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를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미국과는 상당히 달라 중앙은행 정책 간에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경우 특히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4.9%로 ECB의 2% 목표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지만, 독일의 세금 인상과 유가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빼면 잠재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2.6%, 2년간 1.4%에 불과하다.

제네랄리인슈어런스에셋매니지먼트 마틴 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ECB는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 병목현상 등 요인 간 삼위일체의 결과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진 점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4.1%에 달했다.

반면, 유로존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의 여력도 충분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전제조건인 임금 상승세가 미미하다.

또, 경제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막 회복해 미국보다 2분기 정도 뒤쳐진 상태로 잉여 생산능력이 아직 충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ECB의 한 관계자는 "유로존은 생산 갭 면에서 미국과 다른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서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CB는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기 시작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럽의 시각도 머지않아 바뀔 것으로 본다.

아직도 먼 미래에 대해 약속을 하기에는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훨씬 더 거리낌이 없다.

BNP 파리바마켓츠 360 폴 홀링스워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잠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 현재의 물가 충격이 ECB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일시적임이 드러나리라는 우리의 시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란은행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버릴 준비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표현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휴 필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근래의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인플레이션 전망의 거둬진 오버슈팅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유로존과 달리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고, 10월에 기록한 10년 만의 최고치

4.2%에서 내년 2분기 5%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영란은행은 금리가 수개월 안에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르면 이달 첫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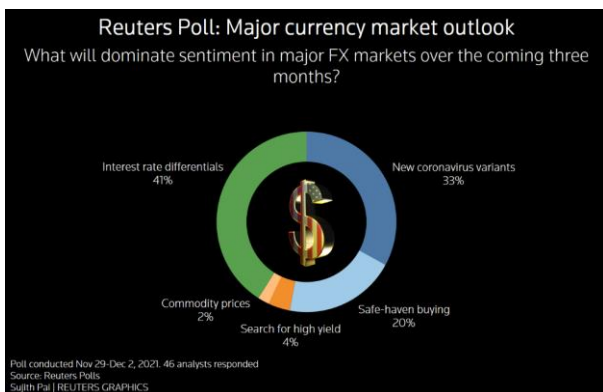
노던트러스트의 우터 스투켄봄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영란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중간 정도인데, 미국의 상황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POLL)-달러 강세 지속 전망..금리 격차 영향 - 애널리스트들

벵갈루루, 12월 03일 (로이터) - 금리 격차가 향후 3개월 동안 외환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 조사에서 외환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다.

달러지수는 올해 들어 근 7% 상승해 2015년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조기 금리 인상 추측이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는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JP 모간의 폴 메게시 FX 리서치 헤드는 "달러는 추세를 반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며 "평균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지기 전 6개월 동안 달러지수는 평균 4%포인트 상승했었고, 이에 이번에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 추측해보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코로나 19 변이종인 오미크론과 관련한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은 상당하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향후 3개월 동안 외환시장을 이끌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애널리스트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가장 많은 답변은 응답자 46명 중 19명이 답한 금리 격차였으며, 두 번째로는 15명이 답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꼽혔다.

이어 9명은 안전자산 매수, 2명은 높은 수익률 추구, 나머지 한 명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각각 답했다.

애널리스트들은 12개월 이내에 대부분 주요 통화들이 달러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안에 달러 대비 유로는 약 1.5% 절상되고, 엔은 2% 추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올해 두 통화는 각각 달러 대비 약 7%, 9% 절하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결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드 주요 10개국(G10) FX 전략 헤드는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고 있는 거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이뤄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 때 달러 약세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물가 쇼크에 1월 금리인상 확정 vs 물가설명회·신년사까지 봐야

서울, 12월 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0여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함에 따라 향후 통화당국의 선택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회의에 이어 내년 1월 기준금리 연속 인상을 결정하는 데 이번 물가

지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관련 데이터 확보와 경제 영향 판단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금융통화위원회의 향후 행보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쇼크에 전망 수정한 한은..1월 금리 인상 확정(?)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3%대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상승폭을 3.7%까지 키웠다. 물가 상승폭은 2011년 12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시장 컨센서스(3.1%)도 크게 상회했다.

이날 물가 통계 발표 이후 한은은 곧장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 경제 전망에서 밝힌 2.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제 전망을 발표한 후 불과 1주일 만에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날 시장에선 한은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빠르게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할 정도로 11월 지표가 예상 밖이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11월 물가 지표 발표로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큰 장애물을 걷어냈다는 인식도 늘어날 전망이다.

노무라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은은 향후 6개월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축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 조정을 정당화하려 할 때 이 같은 물가 내려티브에 의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월 기준금리 인상에 강한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관계자들 "물가 설명회·신년사 발표까지 판단 유보해야"

다만 한은 관계자들은 이번 물가 지표로 1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물가 서프라이즈가 예상치 못한 채소류 가격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큰 만큼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나타난 스탠스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한은의 보도자료에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뿐 아니라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제의 강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다른 부문은 대부분 우리가 예측한 수준이었는데, 채소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면서 소수점 상으로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요 측 물가압력으로 채소 가격과 같은 불규칙 요인의 경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물가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것은 공급망 교란인데 수요 측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수요 없이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면 몰라도 지금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는 것이고 가격 결정의 준거가 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많이 올라간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위험도, 면역 회피 가능성과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된 후 고빈도 지표를 활용해 경제 주체들의 이동성, 소비 활동을 파악한 후 금통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물가 관련 발표 자료에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도를 담은 것 같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과 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오미크론의 위험성이나 확산 가능성에 따른 경제 영향을 어느 정도 판단한 후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에서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만약 1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달 물가 설명회나 내년 신년사에 시그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초점)-달러/원, 왜 1170 원대로 급락했을까

서울, 12월 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이틀째 하방압력을 거세게 받으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출현 이후 '빅 피겨'인 1200 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던 달러/원 환율이 1일 오전 2주래 최저치인 1170 원대까지 속락하자 시장참가자들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 밖 환율 하락에 대한 시장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달러 약세와 리얼머니 중심의 달러 매도세가 주목받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겹치지 않은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 시사 등 매파적 발언이 나왔음에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된 점이 일단 달러/원 하락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사실상 어제부터 이런저런 수급 영향에 달러/원 상단이 눌러왔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 수급 무게중심의 변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달러 약세, 왜?

글로벌 위험회피 여건에서 통상 달러는 강세다. 하지만 오미크론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된 이후 달러는 약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시장 일부에선 미국 통화정책 긴축 속도 차별화에 근거해 강세압력을 받아왔던 달러 강세에 대한 언와인딩이 진행된 결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미크론 출현 이후 1.4%대로 반락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30일 보고서에서 "달러가 엔과 유로에 대해 약세를 보인 데는 금리차 변화가 반영됐다. 최근 수개월간 유의미하게 확대된 엔화 대비 달러 선호 현상은 금리 전망 변화 때문에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ING는 30일 보고서에서 "달러 회복은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백신 보급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뉴스와 엄격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달러처럼 금리 전

망의 도비시한 재평가 여지가 큰 경기 친화적인 통화와 저금리 통화 사이에서 달러는 계속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까지 한 주간 헤지펀드와 머니매니저 등 투기세력의 달러 순 롱포지션은 6주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리스크 오프와 달러를 그대로 연결하기에는 그간 쌓여온 시장 포지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간밤 달러 약세와 이머징 통화 강세를 두고 월말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정리에 따른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오안다 제프리 할리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월말 기관 플로우가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파월의장이 매파 기초를 보였는데 아시아 통화 랠리의 지속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급 무게중심 달라졌다

최근 시장참가자들은 역외를 비롯한 리얼머니들의 달러 매도 집중에 주목하고 있다. 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역외 롱 베팅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특히 전날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1조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이와 관련한 달러 매물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외인들의 주식 환헤지 언와인딩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달 꼭 1년 만에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2조원대 국내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 전자를 매집 중이다. 현재 외인 순매수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4%대 급등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급증해 로이터 전망치 27.7%를 크게 웃돌았다. 이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한 120.4억 달러로 역대 11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데다 대우조선해양은 1.5 조원에 달하는 수주를 공시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기존 시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역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채권자금이 재정거래가 아닌 현물환 시장을 통해 소화된 데다 외인들이 주식 순매수 규모도 대거 확대하고 있어 환율 움직임을 수급 측면에서 이해해야할 듯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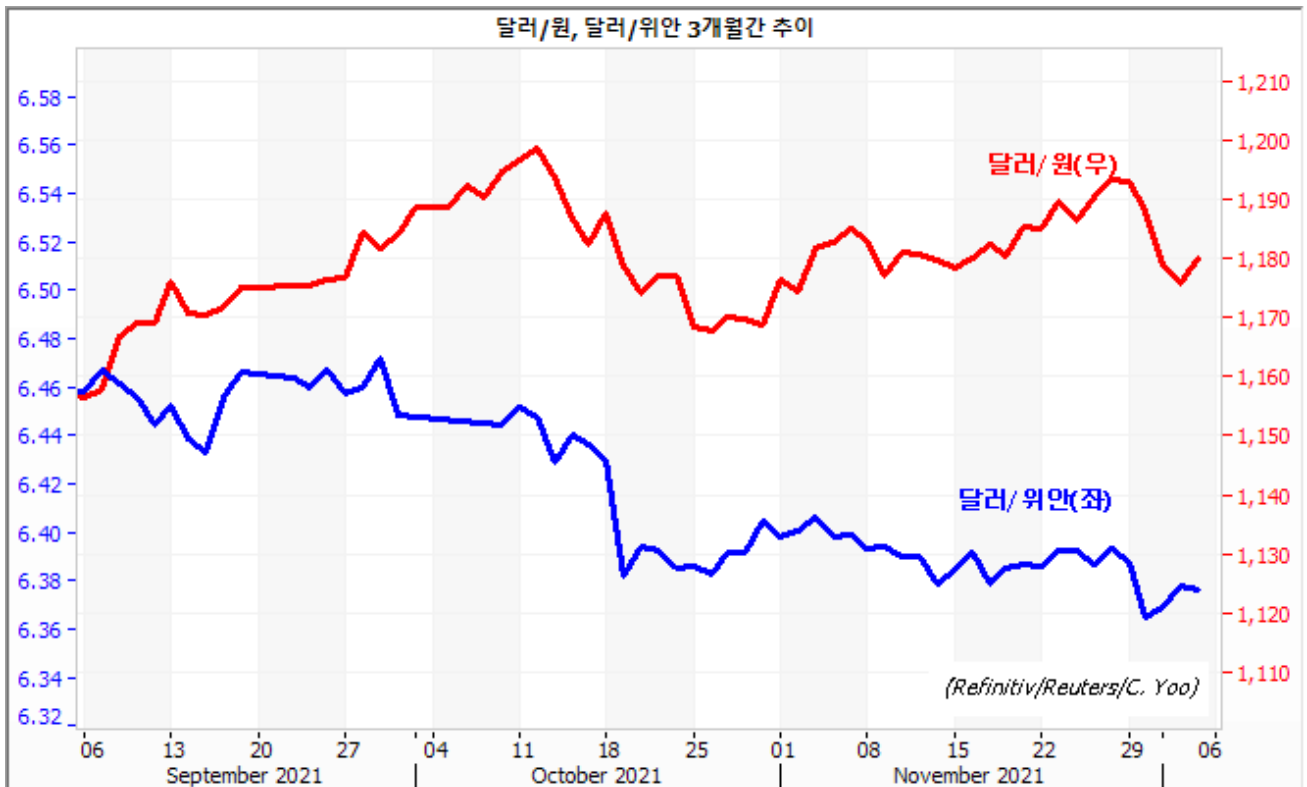
다만 "환율이 1170 원대로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추가 하락은 일종의 오버슈팅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외환딜러는 "오미크론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보고 미국 금리인상 테마로 다시 돌아간 듯한데, 사실 이는 올해 내내 시장에 반영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달러/이머징 통화나 달러/원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역내 외화예금이나 수출 실적 호조 등이 달러/원 전반에 무거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